

한국어 학습자의 다의어 사용 양상 연구

- 형용사 '좋다'를 중심으로 -

엄진숙*

|| 차례 ||

- I. 머리말
- II. 연구 배경 및 연구 문제
- III.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IV. 분석 결과 및 논의
- V. 맺음말

【국문초록】

언어 사용자가 어휘의 다의적 용법을 파악하여 머릿속 어휘사전을 활용하는 양상은 한국인 모국어 화자(KNS)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제2 언어로 하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KSL)의 언어 사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KSL이 어휘의 다의적 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KNS의 사용 양상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KSL은 KNS와 동일하게 '좋다'의 기본의미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기본의미에서 2차, 3차 연쇄된 확장의미의 사용 빈도가 낮았으며, 7가지 용법별 사용 빈도 순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어휘의 의미 확장은 인간의 인지적 보편성으로 인해 L1과 L2 사용에서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둘째, KSL은 KNS보다 어휘의 다의적 용법을 언어적으로 더 활발하게 활용하였다. 그러나 KSL은 확장의미의 사용에서 기본의미의 선행 문법 요소와 동일한 형태를 선호하는 단순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형태적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여 결합 형태의 습득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KSL의 숙달도에 관계없이 '좋다'의 용법별 사용 빈도 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고급

* 영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강사

은 중급보다 '중다'의 기본의미의 사용 비율이 낮은 반면 2차, 3차의 확장의미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숙달도가 높을수록 기본의미와 확장의미의 사용 비율이 KNS의 사용 양상과 유사해지는 중간언어 양상을 나타냈다.

주제어 : 다의어, 다의적 용법, 기본의미, 확장의미, 인지적 보편성, 중간언어

I. 머리말

언어 사용자가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 어휘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 자원이 된다. 따라서 언어 교육에서는 언어 사용자가 목표 사회에서 목표어(target language)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고 상대의 의사를 잘 파악하여 서로 간에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어휘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언어 습득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풍부한 어휘력은 그들의 실제 언어 능력을 능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Nunan 1999:103). 그런데 인간은 어휘의 의미를 모두 개별적으로 암기하기보다 기억 부담을 덜기 위해 머릿속 어휘사전(mental lexicon)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하나의 어휘가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다의관계(polysemy)를 파악하는 것은 모국인 화자(native speaker)뿐만 아니라 L2(second language) 화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어휘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 다의관계에 있는 어휘 즉 다의어(polysemous word)는 일반적으로 어휘 형태가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반해 개별적인 용법은 맥락에 따라 의미적 다양성이 실현된다. 다의어는 본질적으로 명칭의 무한한 확장을 막기 위하여 기존의 형태에 그 의미를 확장하여 하나의 명칭으로 범주화하려는 경제적인 인지 전략이다(임

지룡 2009:223). 하나의 어휘가 의미적으로 점차 확장되어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은 언어의 보편적 경향이다. 이는 수많은 어휘를 개별적으로 기억에 저장하기보다 한 어휘가 지니고 있는 인접성이 있는 여러 다의적 용법을 확장해 사용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인지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어를 L2로 하는(Korean as a second language)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이하 KSL로 줄임) 역시 하나의 어휘를 가지고 여러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인지적 전략을 사용할 것은 자연스럽게 추측되는 바이다. 실제 KSL의 언어에서는 이 같은 양상을 찾아 볼 수 있다.

- (1) 가. 속상하지 마. 좋은 여자가 너무 많아서 한 그루 나무에 죽지 마세요.(IC_30)
 나. 좋아하는 여자가 만났다면서요? 좋은 소식이에요.(IS_02)
 다. *(자신의 이름) 수업시간에 * 안 좋아요.(IC_07)
 라. 선생님의 수업 너무 좋았고 언니로서 이야기해 주는 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AJ_28)

위의 문장들은 다양한 언어적 배경의 KSL이 생성한 문장들로 (1가) ‘착하고 예쁘다’¹⁾, (1나) ‘반갑다’, (1다) ‘바람직하다’, (1라) ‘만족스럽다’의 다양한 의미들을 실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KSL이 하나의 어휘를 다양한 의미 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형용사 ‘좋다’ 사용을 통해 다의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1) 여기에서 KSL이 의도한 의미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아니라 ‘착하고 예쁜 여자’였는데 이처럼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발화자의 의도를 명확히 알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 그 의미를 직접 확인하였다.

II. 연구 배경 및 연구 문제

1. 다의어 ‘좋다’의 의미 구조

본고에서는 형용사 ‘좋다’의 의미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좋다’의 의미 기술 내용을 7가지로 재분류²⁾³⁾하였다.

(2) 형용사 ‘좋다’의 다의적 용법

- [1] 【…이】 대상의 성질, 내용 따위가 보통 이상의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품질이 좋다, 성격이 좋다, 태도가 좋다, 건강이 좋다, 날씨가 좋다, 날짜가 좋다}
- [2] 【…이】 어떤 일, 대상이 마음에 들 만큼 흡족하다, 감정 따위가 기쁘고 만족스럽다(나는 사과가 좋다, 기분이 좋다)
- [3] 【-기가】 【-기에】 어떤 일을 하기가 쉽거나 편하다(음식을 먹기(가) 좋은 크기로 자르다, 이곳은 살기에 좋다)
- [4] 【…에】 어떤 물질이 몸,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성질이 있다
{운동은 건강에 좋다}

2) 김해옥 외(2004:273)에서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좋다’의 의미 기술에 대해 ‘다의 의미 기술에 있어서 지나치게 세분화하거나 유의어 대치 수준의 의미풀이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어휘 학습에 있어서 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좋다’의 의미를 ‘성상, 심리, 평가’로 나누어 8가지 의미로 대분류한 바 있다.

3) 표준국어대사전의 어휘 의미 기술은 품사별([I]「동사」, [II]「형용사」), 문형별([1], [2] 등), 의미별(「1」, 「2」 등)의 순서대로 나와 있으며,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좋다’의 8가지 대분류의 18가지 용법 가운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여 재정의한 것이다.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질이나 수준 따위가 더 높거나 가치가 있다’의 용법은 선행되는 부사격 조사 【…보다】가 결합하지 않으면 [1]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상대편이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데가 있다’, ‘앞의 말을 부정하여 편찬을 주는 데가 있다’ 용법의 ‘ 좋게 말해’나 ‘-(으)면 좋게’와 같은 관용적 표현은 KSL의 실제 자료에서 출현하지 않아 본고에서는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참고로 연세한국어사전(1998:1671-1672)의 경우에는 ‘좋다’의 의미를 6가지로 대분류하여 총 27가지 용법을 기술하고 있다.

- [5] 【(…과)…이】 서로 잘 어울려 친하다(나는 친구들과 사이가 좋다)
- [6] 【…으로】 【-것이】 재료의 용도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적합하다(고랭지 배추는 김장용으로 좋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직접 가는 것이(게) 좋다)
- [7] 【-아도】 어떤 행동이나 일 따위가 문제될 것이 없다, 괜찮다(조금 늦게 와도 좋다)

전통적 관점의 고전적 범주화에 따르면 다의어는 하나의 어휘가 가지는 여러 의미(a1, a2, a3, a4 …) 간에 공유하는 핵심의미(core meaning)가 있다고 가정하여 핵심의미 구조를 가진다. ‘좋다’의 핵심의미는 ‘어떠한 것이 기준점보다 높음’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⁴⁾ 고전적 범주화에 따른 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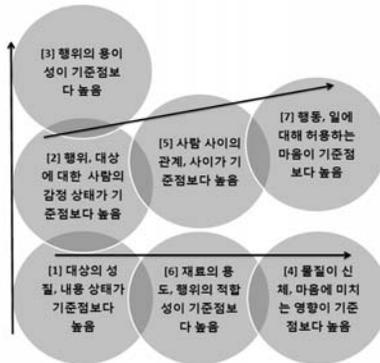
〈도표 1〉 ‘좋다’의 핵심의미 구조



4) 임지룡(2009:198)에서는 ‘직관이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의어의 구성원 간에 핵심 의미를 공유하지 않거나 그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였으나 본고에서 제시한 ‘좋다’의 7가지 의미는 모두 핵심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좋다’의 핵심의미를 이처럼 설정한 이유는 ‘좋다’가 어떠한 대상의 상태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보다 더 높다는 의미를 공통된 속성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는 원형 범주화(prototypical categorization)의 원리에 따라 의미연쇄(meaning chain) 구조⁵⁾로 다의어를 분석하고 있다. 의미연쇄 구조는 ‘가족 닮음(family resemblance)’과 같이 한 어휘의 다양한 의미들이 특정 요소를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 요소만 서로 중복된다(A(abc)→B(bcd)→C(cde)→D(def) …).

〈도표 2〉 ‘좋다’의 의미연쇄 구조1



하나의 어휘가 적용상의 전이 단계를 거쳐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것인데⁶⁾ <도표 2>와 같이 ‘좋다’의 의미연쇄 구조를 도식화할 수 있다. 이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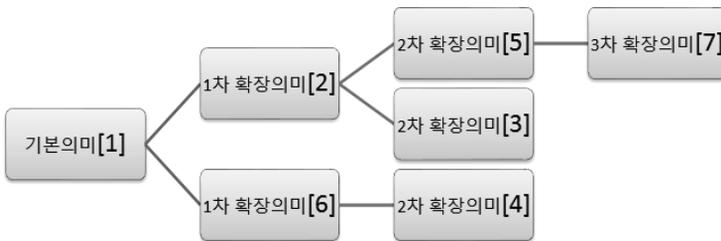
5) 임지룡(1996:245)에서는 연쇄구조에 의한 의미 확장은 동사나 형용사의 분용언과 보조용언의 용법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잣대가 된다고 하였다.

6) 다의어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이 이정식(2003:19-38)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기본의미 [1]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는 ‘[1]→[2]→[3]’으로, 다른 하나는 ‘[1]→[6]→[4]’로 연쇄되었고, [1]에서 연쇄된 의미 [2]는 다시 ‘[2]→[5]→[7]’로 연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의 성질과 내용 상태’가 ‘감정 상태’와 ‘용도, 행위의 적합성’으로 의미가 확장되었고, 이는 각각 ‘행위의 용이성’과 ‘물질이 미치는 영향’으로 확장되었다. ‘[1]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보통 이상의 상태’가 한 방향으로는 ‘[2] 대상에 대한 사람의 감정 상태가 흡족하거나 기쁘고 만족스럽다’로, 다른 방향으로는 ‘[6] 그것의 용도가 적합하거나 맞다’로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쇄되고 있다. 또 ‘감정 상태’가 ‘사람 간의 사이’로 의미가 확장되었으며, 이는 다시 ‘일에 대한 허용도’로 연쇄되었다.

〈도표 3〉 ‘좋다’의 의미연쇄 구조2



따라서 ‘좋다’의 기본의미에서 확장된 나머지 의미들은 서로 간에 연결되는 의미 영역이 존재하여 은유적으로 확장된 다의관계⁷⁾에 있다는 것을

7) 본고에서 의미가 확대되는 방향을 <도표 2>와 같이 제시한 것은 인간 사고의 흐름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의미가 연결된다는 가정 하에 도식화한 것이다. 김령환 (2016:107-109)에서는 형용사 ‘가깝다’와 ‘멀다’의 의미와 도식의 대응관계를 보여 주

알 수 있다.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확장 의미들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배타성을 보여주기도 하는데⁸⁾ ‘좋다’의 기본 의미 [1]에서 의미가 확장된 다른 용법들은 비교적 고정적인 문장 성분이나 형태가 선행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다의어의 경우 언어 사용자가 인지적 능력을 통해 의미 간의 연결성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확장 의미는 기본 의미보다 유표적이어서 선행 문법 요소를 형태적으로 정확하게 결합하여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의 단어가 문맥에 맞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의미적 충돌을 일으키는 의미적 변칙성(anomaly)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L2 화자는 어휘의 형태와 의미 간의 일대다의 연합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각 의미 용법에서 요구하는 문법 형태를 정확히 결합하여 문맥에 맞게 구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의어의 복잡한 양상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형용사 ‘좋다’를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좋다’가 사전에서 6개 이상¹⁰⁾의 하위 부류가 기

었다.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두 대상물 간의 거리의 정도성’을 나타내는 원형 의미가 ‘심리적 거리’, ‘시간, 수치, 성질, 특성 등의 거리’ 등으로 의미가 은유적으로 확장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다의어의 의미 확장을 은유적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Lakoff & Turner(1989: 107)에서 ‘은유는 언어가 아닌 사고의 문제’라고 한 것과 같이 인간 보편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언어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8) 이민우(2012:167)에서는 일반적인 다의로 구분하는 의미들 또한 어느 정도 배타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신체>와 <신체 분비물>의 의미를 지닌 ‘코’는 그 어휘장이 서로 다른 독립된 어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선행 또는 후행 성분의 결합 양상이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9) 변칙적 발화(anomalous utterances)는 문장 속 어휘들의 의미 자질이 서로 맞지 않는 모순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에 따라 특수한 상징적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은유(metaphors)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은유적 발화는 의미적 충돌(semantic clash)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바람처럼 느린 공격수’, ‘베짱이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언어나 관용적 표현의 틀을 깨뜨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이정식(2003:94)을 보면 다의어 어휘는 하위 의미가 6개 이상으로 분화된 것(900항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으로 보았고 그 중 11개의 어휘를 연구한 바 있다.

술되어 있고 특정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¹¹⁾ 한국어 교재 4종에서 초급 1단계부터 제시되는 기본 어휘¹²⁾인 동시에 생산적 어휘(productive vocabulary)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좋다’의 사용 양상을 통해 L2 화자로서 언어 사용 주체인 KSL의 다의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우선 다의어의 의미 확장에 관한 국어학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면 임지룡(1993)에서는 의미의 범주화와 관련하여 고전이론보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원형이론을 통해 다의어를 더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임지룡(1996)에서는 어휘의 의미 확장이 ‘사람, 구체성, 공간, 물리적, 일반성, 내용어’ 등을 중심으로 한 원형 의미에서 의미가 확장되며 그 기제는 환유적 확장과 은유적 확장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 임지룡(2009)에서는 다의어의 의미 확장의 기준으로 인간 경험의 확장 경향성과 타당한 확장

11) Ellis(1985:193)에서 Chomsky의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의 핵문법(core rules 또는 핵심규칙)이 무표적인 것은 그것이 언어의 일반적 경향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든 언어에서 ‘좋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는 존재하고 있으며 그 의미적 용법의 다양성은 하위문법(periphery rules 또는 주변규칙)에 따라 언어마다 다를 수 있다.

12) 형용사 ‘좋다01’은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국립국어연구원)에서 초급 어휘로 분류되어 있고, 4종의 한국어 교재 초급(1급) 과정에서부터 모두 출현하고 있으나(교재 목록 참조) 다의적 용법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시간상의 차이를 두고 비연속적으로 ‘좋다’ 어휘의 다의적 용법을 연결시킬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본고에서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어휘 가운데 ‘좋다’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경미(2015)에서는 일부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좋다’의 용례를 모두 분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좋다’의 다의적 용법의 순차적 교육의 필요성과 ‘좋다’ 격률(문형)과 의미(성상, 심리, 평가, 감탄/결심/궁정)를 기준으로 분류한 교육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경로, 사용 빈도와 문법 정보의 경우를 제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김령환(2017)에서는 원형 범주화의 관점에서 여러 용언의 의미 확장 구조를 은유적 확장과 환유적 확장으로 분석하여 도식화하였다. 본고에서는 어휘 의미 구조 분석의 방식 면에서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앞서 ‘좋다’의 의미구조를 도식화하였다.

다의어와 관련한 한국어 교육 분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김혜옥 외(2004)에서는 형용사 ‘좋다’를 중심으로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사전의 어휘 의미 기술에 있어 의미장, 어휘 의미 관계, 통합 관계 등이 모두 함께 제시될 것을 제안하였다. 문금현(2006)에서는 다의어의 기본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파생 의미는 빈도순에 의해 제시해야 하며 어휘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문과 결합 구성을 모두 제시해야 함을 강조하며 동사 ‘보다’의 학습 순서를 제안한 바 있다. 오현정(2010)에서는 동사 ‘걸다’의 의미 확장 양상과 유형을 도식화하였는데 한국어 학습자들이 영상도식(image schema)과 그림 자료를 이용했을 때 확장된 의미 간의 연관성을 이해함으로써 용처를 구분하고 맥락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진(2010)에서는 동사 ‘가다’ 문장 연상 검사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다의어의 원형 의미는 쉽게 습득하지만 다양한 확장 의미의 경우에는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론을 밝혔다. 김은혜(2011)에서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휘의 의미 분류 과제를 실시하여 동사 ‘먹다’의 확장 의미에 대한 인식 양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민우(2012)에서는 다의어 교육에 있어서 지시 범주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의미 변별이 시작되어야 하며 ‘결합, 사용, 지식’이라는 세 층위의 문맥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심혜령 외(2015)에서는 동사 ‘보다’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다의어의 의미 제시 방식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느끼게 하였기에 다의어의

각각의 의미에 난이도를 부여하는 단계화를 위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다의적 용법들의 제시 순서 또는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로 교육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있으며, 다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한 실제 언어 자료¹³⁾를 통해 KSL의 다의어 사용 양상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 문제

앞서 소개한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KSL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미 확립된 의의 즉 연쇄된 확장의미를 실제로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KSL의 실제 언어에 나타난 형용사 ‘좋다’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비교 대상으로 한국인 모국어 화자(Korean Native Speakers, 이하 KNS로 줄임)의 양상을 먼저 살펴보려 한다. 그리하여 KSL의 다의어 사용 양상을 KNS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KNS가 ‘좋다’의 다의적 용법을 사용하는 양상이 어떠한가?
- 2) KSL이 ‘좋다’의 다의적 용법을 사용하는 양상은 어떠한며, 그것을 KNS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가?

13) 어휘의 의미에 관한 지식을 판단하는 객관식 유형이나 설문지 형식의 DCT(discourse complete task) 과제를 통한 연구는 담화 목적이 분명한 언어 자료(가령 편지글과 같은 경우)를 바탕으로 한 연구와는 그 성격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Ⅲ.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당시 대구 소재 A 대학의 한국어교육원에서 집중과정을 수강 중인 3-4급 중급(I) 32명, 5-6급 및 동대학 학부생 고급(A) 50명 총 82명¹⁴⁾을 대상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텍스트마다 학습자의 숙달도, 국적, 개인고유번호 조합의 학습자 정보를 부여하여¹⁵⁾ 분석하였으며 텍스트 장르는 편지글, 논설문, 광고문¹⁶⁾이었다. 총 10,521어절의 전체 텍스트에서 사용된 형용사 ‘좋다’의 모든 활용형을 대상으로 어간 ‘좋-’이 출현한 예를 모두 추려 문장별로의 의미를 파악하되 전체 텍스트 맥락과 문장 전후 상황에 맞게 담화상의 범위(domain of discourse)¹⁷⁾ 안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KNS

14) 국적 정보는 중국(C) 59명, 베트남(V) 9명, 스웨덴(S) 6명, 일본(J) 3명, 몽골(M) 2명, 미국(A) 1명, 사우디아라비아(S) 1명, 터키(T) 1명이다. 성별은 남자 27명, 여자 55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실제로는 이들 82명 이외에도 23명(중국 8명, 일본 6명, 베트남 4명, 우즈베키스탄 2명, 인도네시아 1명, 대만 1명, 캄보디아 1명)의 자료도 수집되었으나 이들 자료에서는 ‘좋다’의 사용이 단 1회도 출현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따라서 자료 수집 대상의 수가 특정 언어권에 치우치게 되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외된 자료를 포함해 전체 105개의 전체 텍스트 개수를 기준으로 ‘좋다’의 출현 비율은 78%이고, 전체 139회로 평균 1.7회 나타났다. 그리고 본고에서 ‘좋다’ 어휘의 여러 용법이 사용될 법한 중급 학습자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유는 ‘중간언어의 L2 발달 초기 단계의 학습자들은 의미와 형태 간의 일대일 대응이 혼하기’ 때문에 (Ortega 2009:116) 초급 학습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15) ‘숙달도-국적-고유번호’의 순으로 표기하였으며 숙달도는 중급(I-Intermediate), 고급(A-Advanced)으로 구분하였고, 국적은 각 나라의 영문명 첫 글자를 따왔으며, 고유번호는 숙달도별로 번호를 매겼다. 가령 ‘IC_30’은 숙달도 중급의 중국인 학습자 30번을 의미한다.

16) 본고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정한 수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편지글, 운명론 및 행복을 위한 조건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힌 논설문, 중고 물건을 판매하거나 언어 교환 친구를 구하는 등의 다양한 생활 광고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2017년 9월 한 달 간 인터넷 게시판의 체형 기술적 텍스트¹⁸⁾를 무작위로 100편을 수집하여 총 13,471어절을 분석하였다. 각 문장에 사용된 ‘좋다’의 의미는 사전적 기술을 바탕으로 앞서 정리한 7가지 용법을 기준으로 출현 횟수와 비율(%)을 분석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논의

1. KNS의 ‘좋다’ 사용 양상

KSL의 ‘좋다’ 다의어 사용 양상과 비교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실제로 KNS가 ‘좋다’ 어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정리한 ‘좋다’의 7가지 의미 용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KNS는 형용사 ‘좋다’를 총 139회¹⁹⁾, 텍스트 평균 1.4회 사용하였으며 용법의 사용 빈도에 따라 [1]-[2]-[6]-[4]-[5]-[3]-[7]의 순으로 나타났다²⁰⁾.

17) 박종갑(1996:208-209)에서 담화상의 범위는 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적 맥락에서 고려되고 있는 개체들의 집합이라고 하였다.

18) KNS의 언어 자료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에 전체 공개 범위로 게시된 글로,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가상공간에서 자유롭게 주고받은 쌍방향적 담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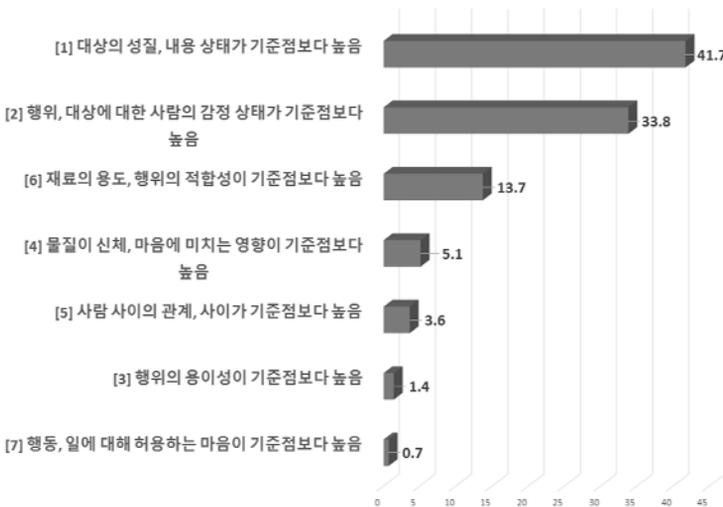
19) 단, KNS 자료에서는 본고에서 분류한 7가지 용법 이외에도 ‘ 좋게 말하면/말해’ 표현이 1회, ‘ 좋게(좋게)’ 동사 결합형(‘ 좋게 좋게 풀다’, ‘ 좋게 넘어가다’ 등이 7회 나타났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 용법을 ‘(주로 문장 앞에서 ‘ 좋게’ 꼴로 쓰여) 상대방이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데가 있다’로,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 좋게’의 꼴로 쓰이어] (상대편이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의 개별 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부드럽게/원만하게/조용히’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예들을 관용적 표현으로 보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0) 형용사 ‘좋다’가 출현한 횟수는 텍스트 종류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광고문 55회, 논설문 49회, 편지글 44회로 나타났다. 본고에서 수집한 광고문의 장르적 특성상 광고하는 대상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좋다’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도표 4>를 보면 KNS는 기본의미 '[1] 대상의 성질, 내용 상태가 기준점보다 높음'이 4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파생된 의미 '[2] 행위, 대상에 대한 감정 상태가 기준점보다 높음'이 33.8%로 나타났으며, [1]에서 파생된 의미 '[6] 재료의 용도, 행위의 적합성이 기준점보다 높음'이 13.7%로 나타났다.

<도표 4> KNS의 '좋다' 사용 양상

(단위 %)



이는 기본의미의 출현이 가장 높고 그 기본의미에서 바로 연쇄된 확장

'좋다' 어휘가 광고문에 편중되어 사용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만일 광고문에서 '좋다' 어휘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절대 빈도가 아닌 상대적인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 종류가 '좋다'의 다의어 사용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의미 [2]와 [6]이 순서대로 나타난 것이다. 즉, KNS는 ‘좋다’의 기본의미를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하고, 기본의미에서 의미적 연결이 연쇄되는 단계를 더 많이 거칠수록 더 낮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의어 용법의 기본의미로부터의 연쇄 단계의 거리는 사용 빈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통해 KNS의 ‘좋다’의 다의적 용법을 사용하는 양상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KSL의 양상과 비교하는 데 있어 기준을 제시해 준다²¹⁾.

2. KSL과 KNS의 ‘좋다’ 사용 양상 비교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KNS의 ‘좋다’ 사용 양상과 KSL을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어절 수와 ‘좋다’의 출현 빈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KSL은 KNS보다 ‘좋다’의 의미 용법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KSL은 10,521어절 중 174회로 60어절 당 1회, 텍스트 수 평균 2.1회를 사용하였으나 KNS는 96어절 당 1회, 텍스트 수 평균 1.4회를 사용하였다. 이는 KSL이 ‘좋다’가 가지는 다의 개념들을 KNS보다 더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L2 화자가 모국어 화자보다 언어 사용에서 의미 확장 양상이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은 언어 화자의 머릿속에 내재된 어휘 정보량 즉 유의어 어휘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KNS는 어휘에 관한 다양한 언어 정보를 많이 내재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맥락에 따라 언어적 자원을 자유롭게 취사선택하여 문장을 다채롭게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1) 임지룡(2009:218)에서는 어휘의 텍스트의 빈도수는 다의적 의미 확장에서 구체적인 사용 양상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잣대이지만, 빈도수가 경험의 확장 경향성과 타당한 확장 경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KSL 역시 다양한 어휘를 통해 유사한 의미를 전달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 어떤 일, 대상이 마음에 들만큼 흡족하다, 감정 따위가 기쁘고 만족스럽다'의 의미를 전달할 때 '좋다'를 38회 사용하였고 다음 예와 같이 '마음에 들다', '긍정적' 어휘 역시 5회 사용하였다.

(3) 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일단 보러 오고 마음에 들면 좀 깎아 줄게요.(AC_18)

나. 이에 비해 사람들이 긍정적인 기대를 해서 좋은 결과를 확률이 높다.(AA_01)

다른 유의어 사용 빈도보다 '좋다'의 빈도가 훨씬 높기는 하지만 KSL은 제한된 언어 정보 내에서 자신의 발화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른 유의어도 함께 사용하는 어휘 전략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KSL의 이러한 양상은 KNS가 '좋다'의 유의어 '마음에 들다', '긍정적', '만족하다', '행복하다', '즐겁다'의 다섯 종류의 어휘를 총 10회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어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즉, KSL은 형태와 기본의미 간의 연결을 일단 습득하게 되면 동일한 형태 정보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 용법을 활용하는 경향이 KNS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다²²⁾. 따라서 KSL이 어절 수 대비해 어휘의 다의적 용법을 사용하는 빈도가 KNS보다 더 높은 양상을 중간언어²³⁾적 관점에서 본다면 KSL의 어휘력이 높아질수록 KNS와 같이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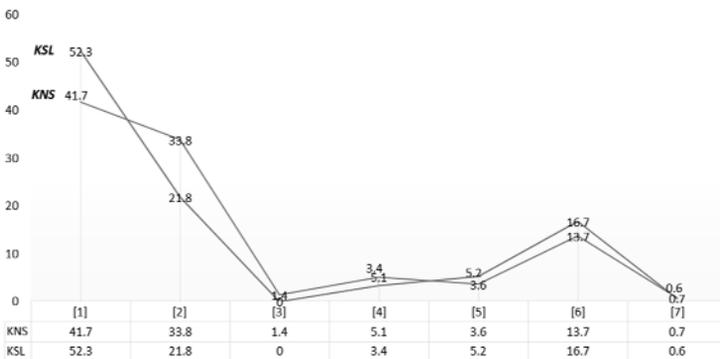
22) 이 같은 언어 전략은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SLA(Second Language Acquisition) 연구에서 문법과 기능 간의 일대대 대응이 이루어질 때 L2 학습자들은 학습 초기에 학습 순서나 형태적 복잡성으로 인해 한 가지 기능만을 대응시키는 단순화(simplification)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Sugaya & Shirai(2007), Andersen(1984) 등이 있다.

의 다의적 용법을 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KSL은 7가지의 의미 용법 가운데 여섯 종류가 나타났고 빈도에 따른 순위는 [1]-[2]-[6]-[5]-[4]-[7]-[3]으로 나타났다. <도표 5>를 보면 ‘좋다’의 기본의미 ‘[1] 대상의 성질, 내용 상태가 기준점보다 높음’이 52.3%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2] 행위, 대상에 대한 사람의 감정 상태가 기준점보다 높음’의 용법이 21.8%로 그 뒤를 이었다.

<도표 5> KSL과 KNS의 ‘좋다’ 사용 양상 비교

(단위 %)



다음의 (4가), (4나)는 [1]의 용법으로, (4다), (4라), (4마)는 [2]의 용법으로 나타난 문장들이다.

(4) 가. 새로운 것이고 디자인 좋습니다.(IV_06)

나. 경제적 조건이 좋으면 행복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AC_27)

다. 같이 살면 매일매일 행복을 받을 수 있다. 기본도 매일 좋

23) 중간언어(interlanguage)는 일반적으로 학습자 언어가 L2인 목표어를 향해 발전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언어를 의미한다.

다.(IC_08)

라. 자기의 취미로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있다. 좋은²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AV_31)

마. 운명을 믿는 사람이 운명을 믿지 않은 사람보다 좋은 기분이 더 작다. 생활 중 자주 나쁜 일이 있었다.(AC_09)

문맥상 (4다), (4라)는 ‘(감정적으로) 좋아하다’를 의미하고 (4마)는 ‘행복하다, 유쾌하다’ 등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확장의미 ‘[2] 행위나 대상에 대한 사람의 감정 상태가 기준점보다 높음’을 뜻한다. 이와 다른 방향으로 의미가 연쇄된 ‘[6] 재료의 용도, 행위의 적합성이 기준점보다 높음’이 16.7%로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 기본의미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연쇄된 두 의미([2], [6])가 각각 2, 3위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KNS의 순위와 완전히 동일한 양상이다. 이는 목표어가 모국어든지 L2든지 관계없이 언어 사용 주체가 어휘를 사용하는 인지적인 측면에서 보편적 경향이 있음을 암시한다. Ortega(2009:111)에서는 주변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언어 자료로부터 규칙을 발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인간의 동일한 일반적 인지 학습 기제라고 하였다. ‘좋다’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 용법 가운데 사용 빈도 순위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어휘 의미에 관한 인간의 인지 학습 기제의 특성이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본의미와 확장의미간의 연쇄 순서에 따라 사용 빈도 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다의어의 의미 확장과 관련된 인간의 인지적 양상이 목표어가 L2라 할지라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뜻한다.

24) 이 예문에서 ‘좋은 일’의 의미를 ‘좋아하는 일’로 해석하여 대치 오류로 볼 수도 있을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여 형태적 오류로 볼 수도 있는 사용의 예(‘저는 여행을 아주 좋습니다.’, ‘이야기도 좋습니다.’)가 2회 나타났으며 본고에서는 맥락상 용법 [2]로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그러나 결합되는 문법 정보와 관련하여 [1], [2]는 주격조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6]은 부사격조사 ‘(으)로’와 명사절 안긴문장 ‘-는 게’가 결합하는 형태이다. KNS와 달리 KSL의 자료에서는 ‘(으)로’ 결합 형태가 단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격조사²⁵⁾와 ‘-는 게(것이)’ 형태만이 나타났다.

(5) 가. 초보자한테는 너무 복잡하지 않은 카메라가 좋으니까 참고하세요.(IC_08)

나. 그렇기 때문에 운명론을 안 믿는 것이 좋다.(AA_01)

다.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AJ_41)

위의 예문은 KSL이 ‘좋다’를 [6] 적합하다, 낫다, 맞다’의 의미로 사용한 경우이다. KSL이 의미적으로 ‘좋다’의 용법 [6]을 사용하더라도 기본의미 용법과 동일한 선행 문법 요소만 사용하는 단순화 경향을 보인다²⁶⁾. 이러한 현상은 어휘의 다의적 용법을 활용하는 단계라 할지라도 각각의 형태

25) 남경완(2008:115)에서 ‘통사적 형태의 정체성은 의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로부터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실재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인 것이지, 그로부터 모든 의미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특징짓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즉, 본고에서 용법 [6]이 사전에는 ‘으로’ 형태가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KSL이 사용하는 문법 정보는 주격조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증고품을 팔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IC_20)’라는 문장은 ‘어디가 증고품을 파는 곳으로 좋을까요?’인 셈인데 이런 식의 문장 해석을 통해 용법을 파악했을 때 통사적 형태 자체가 용법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6) 이는 의사소통 전략 중 형태적 회피로 볼 수도 있다. 또는 한국어 교재 4종에 제시된 ‘좋다’의 문장들을 살펴보면 ‘-(으)면 좋다’(‘이 세상에 총과 같이 없으면 좋겠어요.’-연세한국어1-9과), ‘-아서 좋다’(‘아주 더워서 바닷가에 가면 좋을 거예요.’-연세한국어1-9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선행 요소는 주격조사 ‘이/가’나 보조사 ‘은/는’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좋다’의 선행 문법 요소를 단순화해 사용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적 결합 관계를 정확하게 습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²⁷⁾. KSL의 형태적 오류 양상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6) 가. 천원은 음악을 4개 살 수 있어요. 산 음악의 *음질을 아주 좋던데
요.(IC_18)

나. 담배는 사람들의 *건강에게 좋지 않는 물건이고 세계에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담배를 금연하는 생각을 선전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 인상을 한다.(AC_25)

다. 일이 많은 시간에 밥도 못 먹었다. 그게 *건강도 좋지 않다.(AC_38)

(6가)는 용법 [1]로 ‘음질이 좋다’, (6나)와 (6다)는 용법 [4]로 ‘건강에 좋다’ 형태가 결합되어야 적절한 사용이라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KSL의 4위와 5위는 용법 [5]와 [4]가 각각 차지했는데 이는 KNS와 순위가 뒤바뀐 것이고, KSL의 6위, 7위는 용법 [7]과 [3]으로 이 역시 KNS의 순위와 뒤바뀐 것이다. 그러나 비율 차이가 크지 않다. 용법 [7]의 경우 KNS는 0.7%, KSL은 0.6%로 나타났다. 용법 [3] 행위의 용이성이 기준점보다 높음은 KSL의 경우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는데, 대체 가능한 유의어 ‘쉽다’, ‘편하다’ 등의 문형 및 유사한 맥락 역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KNS의 경우에도 단 1.4%에 불과했다²⁸⁾. 즉, KSL의 다의어의 기본의미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1차 확장의미 사용 빈도가

27) 연어 표현이나 관용구와 같이 다의어의 각 용법에서 제약되는 문법 결합 형태가 필수적 맥락에서 그 형태적 정확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의미 습득이 형태 습득보다 먼저 이루어졌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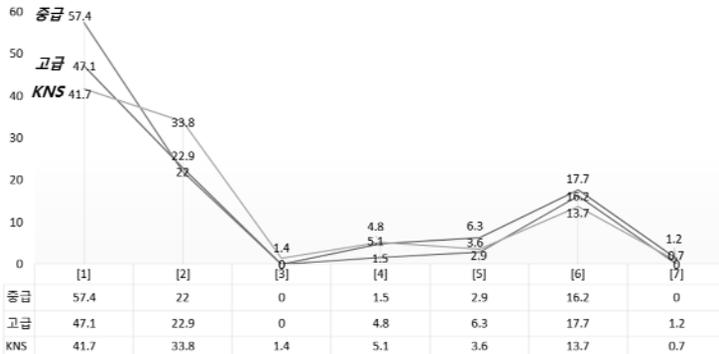
28) 용법 [3]의 사용 빈도가 저조한 것은 ‘-기가/기에 좋다’를 사전에서 ‘[3] 쉽거나 편하다’의 의미로 풀이하고는 있으나 사실 이는 용법 [6] 적합하다(낫다)와 의미 중복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과 관련해 사전의 의미 분류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2차 확장 의미 사용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양상은 KNS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는 KSL은 다의어의 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 학습 순서나 형태적 복잡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도표 6>의 KSL의 숙달도별 양상을 살펴보면 중급 68회, 고급 104회 총 174회로 나타났고, 숙달도에 관계없이 사용 빈도 순위가 [1]-[2]-[6]-[5]-[4]-[7]-[3]의 순으로 완전히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다. KSL의 한국어 사용 경험 정도가 다의어의 용법별 사용 빈도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KSL이 한 어휘의 다의적 용법을 모두 습득했다고 가정했을 때 숙달도가 높아져도 사용 빈도 순위의 변화가 없는 점은 어휘의 다의 개념을 의미론적으로 인식하는 L2 화자의 인지적 양상이 숙달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기본 의미 [1]의 사용 비율이 중급 57.4%에서 고급 47.1%로 10%가량 줄어들어 KNS의 양상과 더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도표 6> 숙달도별 KSL의 '좋다' 의미 용법 사용 양상

(단위 %)



즉 중급에서는 다의어의 기본의미의 사용 비율이 절반이 넘지만 고급에서는 기본의미를 제외한 나머지 확장의미의 사용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이다. 이는 KNS 역시 기본의미 [1]을 제외한 나머지 확장의미의 비율이 58.3%를 차지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KSL은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KNS와 유사하게 기본의미 이외의 확장의미 용법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며 여러 용법을 분산시켜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V. 맺음말

지금까지 KSL의 ‘좋다’의 다의적 용법을 사용하는 양상을 KNS와 비교하여 그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앞서 제시한 본 연구의 두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KSL의 ‘좋다’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그 비교 대상으로 KNS의 사용 양상을 먼저 분석해 본 결과, KNS는 ‘좋다’의 7가지 용법을 [1]-[2]-[6]-[4]-[5]-[3]-[7]의 빈도순으로 사용하였다. 기본의미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기본의미에서 연쇄된 단계가 멀어질수록 사용 빈도는 낮아졌는데 이를 통해 KNS가 ‘좋다’의 다의적 용법을 사용하는 양상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2. 먼저, KSL은 한정되어 있는 어휘 정보량으로 인해 ‘좋다’의 다의적 용법을 사용한 횟수가 어질 수 대비하여 KNS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KSL은 KNS보다 일대다 대응의 다의어의 용법을 언어적으로 더 활발하게 활용하였다.

또 KSL은 ‘좋다’의 용법을 [1]-[2]-[6]-[5]-[4]-[7]-[3]의 빈도순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KNS의 사용 양상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의어의 의미 확장이 인간의 인지적 보편성으로 인해 L2 화자와 모국인 화자의 사용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KSL은 KNS와 달리 기본의미와 동일한 선행 문법 요소를 사용하는 단순화 경향이 나타났으며, 문법적 오류가 나타나는 등 형태적 측면에서 습득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KSL의 숙달도 변인에 따른 ‘좋다’의 사용 양상은 순위가 [1]-[2]-[6]-[5]-[4]-[7]-[3]으로 완전히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한국어 사용 경험이 다의 개념을 의미론적으로 인식하는 L2 화자의 인지적 양상과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고급은 중급보다 ‘좋다’의 기본의미의 사용 비율이 낮았고 2차, 3차 확장 의미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KNS의 양상과 유사하였다. KSL의 어휘의 다의적 용법의 사용은 언어 능력이 높을수록 KNS의 양상과 가까워지는 중간언어 양상을 나타냈다.

이상으로 ‘좋다’ 어휘의 사용을 통해 KSL이 다의어의 의미 용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KNS의 사용 양상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고는 인지적 측면에서 KSL의 언어 사용을 통해 한국어 어휘의 의미구조를 인식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시도한 기초 연구이다. 본 연구가 부족하나 한국어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령환, 「다의어의 의미 구조와 의미 확장 양상」, 『의미관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16, pp.89-119.
- 김은혜, 「동사 ‘떡다’를 통해 살펴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다의 관계 인식 양상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41집, 2011, pp.311-338.
- 김혜옥·정희정·유현경·고석주,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의미 기술 연구 -형용사 ‘좋다’를 중심으로-」, 『응용언어학』 20(1), 한국응용언어학회, 2004, pp.267-286.
- 남경완, 『국어 용언의 의미 분석』, 국어학총서 63, 국어학회, 태학사, 2008.
- 문금현,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다의어 학습 방안 -동사 ‘보다’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30호, 이중언어학회, 2006, pp.143-177.
- 박종갑, 『토론식 강의를 위한 국어미론』, 박이정, 1996.
- 심혜령·문정현, 「한국어 다의어 의미별 등급화 연구 -‘보다’를 중심으로-」, 『문법교육』 제23호, 한국문법교육학회, 2015, pp.125-148.
- 오현정(2010), 「동사 ‘걸다’의 인지이미 연구」, 『한국어 의미학』 32, 한국어 의미학회, 2010, pp.141-168.
- 이경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형용사 ‘좋다’ 구문의 특성과 교육 정보」, 『어문연구』 86, 어문연구학회, 2015, pp.5-36.
- 이민우, 「의미 확립 단계를 이용한 한국어 다의어 교육 방안」, 『언어학 연구』 22, 한국중원언어학회, 2012, pp.163-177.
- 이정식, 『다의어 발생론』, 도서출판 역락, 2003.
- 임지룡,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 한국언어학회, 1996, pp.229-261.
- 임지룡, 「다의어의 판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 의미학』 28, 한국어 의미학회, 2009, pp.193-226.
- 임지룡, 「원형이론과 의미의 범주화」, 『국어학』 23, 국어학회, 1993, pp.41-68.
- 정 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가다’ 의미 습득 양상」, 『한국어 의미학』 33, 한국어 의미학회, 2010, pp.321-348.
- Andersen, R.W., What's gender good for, anyway?, Second Language: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Newbury House, 1984, pp.77-100.
- David, Nunan., Second Language Teaching & Learning, Heinle & Heinle

- Publishers, 1999.
- Lakoff, G. & M Turner.,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 Lourdes, Ortega.,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Hodder Education, 2009.
- Rod, Ellis.,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Sugaya, N. & Shirai, Y., The Acquisition of Progressive and Resultative meanings of the Imperfective Aspect Marker by L2 Learners of Japanese: Transfer, Universals, or Multiple Factor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9, 2007, pp.1-38.

<한국어 교재>

- 서강 한국어 1A, 1B,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서울대 한국어 1A, 1B,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TWO PONDS.
- 연세 한국어1-1, 1-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 출판부.
- Easy Korean for Foreigners, 한국어교육문화원, Language Plus.

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Polysemous Word by KSL

- focusing on the adjective 'johta' -

Eom, Jin-suk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how KSL utilized polysemous word in comparison to KNS through analysis their writing data. First of all, for KSL, the frequency of using basic meaning was the highest while the use of secondary and third extended meanings was infrequent. This was the same with KNS. Frequency rankings of seven usages of 'johta' by KSL were the same with KNS. This shows that the use of polysemous word of L2 speakers is similar to native speakers because of the cognitive universality of human. Secondly, KSL used usages of polysemous word 'johta' linguistically more than KNS. However, KSL preferred a grammatical form of preceding a basic meaning to marked forms that could lead to simplification of sentences. There were frequent forms of grammatical errors, too. It means that KSL did not acquire all grammatical forms of preceding of extended meanings at the same period time. Moreover, frequency rankings of seven usages of 'johta' were the same regardless of linguistic ability. However, advanced learners used basic meaning of 'johta' less than all extended meanings while the opposite occurred in intermediate learners. That is, the higher the degree of the proficiency of KSL. it shows more similarity with KNS in utilizing a basic meaning and extended meanings of polysemous word in percentage. This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interlanguage.

Key Word: Polysemous Word, Usage of Polysemy, Basic Meaning, Extended Meaning, Cognitive University, Interlanguage

엄진숙

소속 : 영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강사

전자우편 : th0206@ynu.ac.kr

이 논문은 2017년10월 31일 투고되어
2017년 12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12월 8일 게재 확정됨.